

1. 시사토론

브라질 호세피 재산의 의미와 전망

- 일시: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 장소: 한중남미협회

사회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토론

권기수(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박원복(단국대학교 포르투갈 브라질어과 교수)

김민곤(브라질 로펌 Demarest Advogados 변호사)



왼쪽부터 김민곤 박원복 김기현 권기수

김기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최 제2회 시사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라질 호세피 재선의 의미와 전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주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권 박사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을 맡고 계시고, 명실공히 브라질 경제에 대한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민곤 변호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브라질 로펌 소속이시고, 지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파견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6월에 저희 로펌에서 김앤장 로펌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파견을 나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M&A(인수합병), IPO(주식공개상장)입니다.

김기현: 다음으로 박원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브라질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단국대학교 포르투갈 브라질어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박원복: 반갑습니다.

김기현: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2013년 대중시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월드컵을 앞두고 리우와 상파울루에서 약 2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는데요, 1985년 민주화 이후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Fernando Affonso Collor de Mello, 1990~1992 재임) 대통령을 하야하게 했던 시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잘나가던 노동자당(PT) 정부 시기에 왜 이런 대규모 대중시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알고 싶은데요, 당시에 브라질에 계셨던 김민곤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곤: 저는 정치나 경제 문제를 떠나서 그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위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작됐는데, 처음에 상류층이라기보다 중산층 이상의 시민은 단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다소 폭력적으로 싸운다는 정도로 인식했고, 미디어에서도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상안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저희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갔습니다. 특히 집회 장소가 저희 로펌 앞이었기 때문에 집회가 있는 날에는 방송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는 인턴이나 신입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위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모여서 마치 축제 때처럼 3km, 5km, 10km를 걸어서 행진했죠. 물론 시위대 중에는 상점들을 약탈하는 등 과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진정됐지만, 처음에는 약간 폭력적이긴 했습니다.

김기현: 단순히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라 부패를 문제 삼게 되면서 중산층도 시위에 가담했다는 말씀인데요, 박원복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복: 초기에는 메트로폴리탄 중심으로 6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400개 도시에 2백만 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SNS가 발달해서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우마 호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도 시위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했고, 민주주의 여러 속성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27개 주 주지사 와 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죠. 그런데도 왜 그런 시위가 발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제 생각에는 호세피 정부 자체가 안고 있는 고유한 문제, 즉 많은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호세피가 항상 얘기한 통치성(Governabilidade)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연정을 하다 보니 정당별로 장관직도 다 나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호세피 정부가 좌파이면서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했던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부패의 온상이던 사르네이(José Sarney, 31대 대통령)와도 손을 잡고, 해난 칼레이루스(Hernan Calheiros)와도 손을 잡고, 탄핵당했던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32대 대통령)까지도 손잡게 됐죠. 그러다 보니, 톨라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지던 좌파 정부의 독특한 색깔이 완전히 퇴색됐고, 좌파가 추진했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도 사실상 무색해진 거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또한, 톨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2만 1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불만을 파악하고 수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호세피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그리고 전통적으로 노동당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불만이 상파울루에서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는 인상안이 발표되자 폭발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연정 때문에 톨라로부터 이어진 노동자당의 독특한 색깔이 희미해져버렸고 정부와 시민 사회운동 사이의 교감이 약해졌다는 상황이 근처에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그러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김 변호사님은 중산층이 다수 개입했다고 하셨는데, 시위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원복: 호세피 대통령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찬성표를 던졌던 C 그룹, A/B/C/D/E 그룹으로 나누자면 딱 중산층이죠, 이들은 노동자당 이라든가 룰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1천2백6십만 가구가, 1가구가 3.5명이니까, 약 3천5백만에서 많게는 4천만 명 정도가 사회계층으로는 C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이죠. 이들이 룰라뿐 아니라 노동자당의 포용 정책 혜택을 받고 많이 올라섰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필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필품이 필요했지만, 이제 C계층으로 올라섰으니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 사항이 달라졌는데, 호세피 정부는 연정을 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점점 멀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C계층이, 특히 모비멘토 페시에 리브레(Movimento Passe Livre, 무료 승차 운동)라는 운동이 시위의 주동 세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호세피 재당선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에시오 네베스(Aécio Neves) 후보가 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결해줄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세피를,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래서 재선에서 이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김기현: 그러니까 빈곤층을 막 탈피한 신(新)중산층이라고 해야겠죠. 신중산층이 빈곤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게 됐다, 그런데 호세피가 그런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권기수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기수: 제 생각도 박 교수님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태의 경제적 측면입니다. 작년 시위 사태를 보면서 생각해볼 것 중 하나가, 중남미에서 관심을 뒤야 할 최근 화두가 중산층의 부상인데, 이 중산층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중남미에서 중산층의 부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중남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수 위주여서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나 정부에 대해 중산층의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포미제로(Fome Zero)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정부의 서민주택(Minha Casa Minha Vida) 공급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서민에게 조금만 혜택을 줘도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죠.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중산층이 사실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문제에 왜 그토록 큰 폭발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중남미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세계은행에서 분석한 자료를 봐도 중남미 중산층은 취약 계층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부상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위를 일으킨 사람들이 중산층일 수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속한 중산층 사람들도 있죠. 중산층의 반란이라고 할 때 그 중산층은 실제로 중상류층에 속하는 중산층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산층에 진입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취약한 계층 사람들이고 이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당



시위에 참여한 브라질 시민

시에 정치적 측면을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폴라 지 상과 울루』(Folha de S. Paulo)같은 데 게재된 칼럼을 읽어보면, 왜 브라질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실제로 브라질 경제 전문가들도 이 문제로 고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는 하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은『폴라 지 상과울루』의 칼럼에서 대표 경제 전문가 중 한 사람도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고백하면서, 브라질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알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브라질 경제학자들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마침 그때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원장 겸 전략처 장관하고 브라질 대사관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

었는데, 그때 대화의 결론은 실제적인 중산층의 욕구,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높는데 정부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그런 욕구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최근의 반란을 추동했다는 것이었죠. 사실 당시에는 시위가 한참 진행 중이었으니 브라질 대사나 장관 같은 상류층의 판단이 명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 동의하는 것 같더군요.

김기현: 중산층의 반란인데, 노동자당에 반대하는 상류층은 뒤에서 좀 즐겼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민곤: 저희 로펌에 있는 분들은 중산층이라기보다 상류층이라고 봐야죠. 당시에 상류층의 반응을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태를 지켜보더군요. ‘세상에,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졌네, 저기선 이런 일이 있었대, 또 다른 데선 저런 일이 있었대’ 하는 정도였죠. 그때가 유월이었으니까, 시위 소식이 조금씩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로펌 사람들도 팸플릿을 만들고, 호세 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노동당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상류층에 속한 변호사들은 제삼자 입장에서 의사 표명이나 하는 정도였지만, 인턴이나 주니어 변호사들은 시위에서 역할이라도 부여받은 듯이 열심히 참여하고 사진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아까도 SNS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사이에서도 SNS에 포스팅하기가 유행했는데, 얼마나 더 유식하게 코멘트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당시 상류층이 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기현: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언론에서 이번 대선이 브라질 선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거가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후보가 호세피와 함께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오히려 시우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시우바 후보가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시우바 후보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갑자기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복 선생님부터 말씀해주시죠.

박원복: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톨라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죠. 그런데 호세피와 크게 싸우고 탈당했어요. 톨라 정부에서 나온 거죠. 그러자 녹색당(PV: Partido Verde)이 대선을 겨냥해서 시우바를 영입하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나 시우바는 자기 당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Rede Sustentabilidade)’라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브라질 법률상, 창당하려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시우바는 49만 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8월에 브라질 사회당(PSB: Partido Socialista Brasileiro), 얼마 전에 사망한 캄푸스(Eduardo Campos), 페르남부쿠(Pernambuco) 주지사가 속한 브라질 사회당에 들어가서 러닝메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캄푸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타로 시우바가 조명을 받게 됐죠. 그런데 시우바 후보가 크게 지지받지 못한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는 호세피가 41.6%, 결선까지 갔던 아에시오가 33.6%, 그리고 마리나 시우바가 22.3%까지 올라갔지만, 8월에 반짝하더니 9월에 추락했던 말이지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마리나 시우바 후보가 노동자당에서 나와서 다른 당으로 갔잖아요. 노동자당에서는 시우바

가 대선후보로 나서자 호세피 후보의 표를 잡아먹을까 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에서는 “노동자당의 짝퉁”이라고 비난했죠. 노동자당에서 나와서 직접 당을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사회당에서 출마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받은 겁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당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마리나 시우바의 인기는 추락하고, 아에시오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어쨌든 마리나 시우바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선거법원에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데,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마리나 시우바만이 수백 쪽에 달하는 선거공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죠. 공약이 제시되니까 엄청난 집중포화를 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는 동성애 혐오자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니까, 개신교 쪽에서도 공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정책을 바꾸는 식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정치적 개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김기현: 시우바는 동성애를 지지한 거죠?

박원복: 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노동자당의 공격, 사회민주당의 공격,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고, 그다음으로는 룰라가 총대를 메고 호세피를 대신해서 시우바를 공격했다는 점도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했죠. 상파울루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이 얘기가 나오자 시우바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공격과 난관에 부딪혀도 눈물을 보

여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통령이 될 자질 문제로 번져서 갑자기 인기가 폭락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시우바가 입당한 사회당 자체의 내분 문제도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들어온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로 내분이 생긴 거예요. 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마리나 시우바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곧바로 탈당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내분이 생기니까 탄력을 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굳이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마리나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이 필요했고 지지자들도 그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나가 “부정을 저지르기보다는 부정을 당하는 편이 낫다”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우바는 갑자기 부상했다가 추락했죠. 그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TV 후보자 정책 발표 방송 때 아예시오한테는 4분, 호세피한테는 11분이나 할애됐는데, 마리나한테는 2분밖에 시간이 없었으니 자기 정책을 홍보할 여건도 되지 못했죠.

김기현: 마리나 시우바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셨는데, 처음에 인기가 높았던 데에는 이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정직성이 돋보였다는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어떤 면모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권기수 박사님, 어떤가요?

권기수: 일반적인 분석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캠퍼스가 죽으면서 대통령 후보자가 됐다는 극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초기에 마리나 시우바의 이미지는 국민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8월까지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마리나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더라고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서도 마리나 후보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했죠. 마침 제가 대사관에서 식사할 기회

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브라질 전문가가 왔기에 마리나 시우바의 부상이 혹시 일시적인 게 아니냐, 조직적 기반이 약한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상한 게 일종의 환상 때문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작은 당 소속으로 유명한 부인 덕분에 급부상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거기 모이신 분들이 '아니다, 마리나 시우바는 허깨비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8월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마리나 시우바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았죠. 노동자당의 전략을 봐도 처음에는 마리나 시우바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부상해서 호세피하고 호각지세를 보이니까, 가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죠. 그전에는 마리나 시우바의 청렴한 이미지라든지 강경한 환경론자의 이미지가 부각하면서 국민한테 어필했죠. 시우바의 실체는 잘 모르고, 이미지나 감성적인 호소력에 매료돼서 국민이 지지했던 것이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 하나로 성공한 인물, 어떻게 보면 톨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국민한테 반짝인기를 얻었는데, 현실적인 선거 공약이나 실질적인 정책 문제에서 노동자당의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시우바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약의 실체나 공약을 실천할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으면서 인기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노동자당의 집중포화를 받아야 했던 아에시오 네베스는 그 덕분에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공격을 피했고, 마리나 시우바가 주저앉자, 상대적으로 안착해서 결선투표까지 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개인적 브랜드 가치는 있는데, 이 험한 선거판, 정치판을 건디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생각이 나네요. (웃음) 그런데 시우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변호사님?

김민곤: 분명히 상류층은 아니에요. 마리나 시우바가 반짝 떴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기사도 읽어보고 페이스북 코멘트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솔직히 마리나 시우바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중하층의 상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호세피를 지지하던 분들이 마리나 시우바에게로 옮겨 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에시오 지지층이 조금 빠져나가 시우바에게로 갔죠. 제 친구들도 당시에 마리나 시우바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잠깐 반짝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원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브라질 정치를 보면 지난 20년간 노동자당과 사회민주당의 양당체제였잖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짝했던 거죠. 국민도 신선함을 느꼈을 테고요.

권기수: 일부에서는 제삼의 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박원복: 노동자당이 집권한 지 벌써 물라 8년, 호세피 4년, 이렇게 12년이 지났는데도 국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리나 시우바가 값아먹은 쪽은 아에시오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저런 말이 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타우(Itaú) 은행 상속녀가 마리나 시우바의 선거 유세에 동원됐다는 거였습니다. 지우마 호세피는 '봐라, 마리나는 은행가들이나 상대하는 사람이지 서민층과는 거리가 멀다. 서민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격했죠. 그런 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권기수: 개인적인, 우스운 경험이긴 한데, 캄푸스가 죽고 마리나 시우바가 뜨면

서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기에 제가 잘못된 전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마리나 시우바의 노선이 톨라, 노동자당보다 더 강경하잖아요. 예전에 환경 문제로 톨라하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발전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보호로 갈 것이냐는 선택을 두고 톨라와 노동자당 노선에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죠. 저는 마리나 시우바가 뜨면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죠. 마리나 시우바한테는 그런 강경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캠퍼스와 함께하면서, 이념적으로 몰타기가 됐고, 무늬만 남고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졌죠. 정체성도 잃었고 주체성도 약해졌죠.

김기현: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에시오 후보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아에시오 후보가 9월까지 지지율이 거의 5%에도 못 미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상하면서 결선투표에서는 호세피를 이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상한 이유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이번에는 권기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권기수: 아에시오 후보가 부상했던 요인을 제가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를 선거와 연관 지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6일 1차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두고 중산층의 부상을 자주 얘기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듯이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남미 정치 지형의 보수화를 유발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근 10월 6일 대선하고 정당선거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대선 중에서, 그러니까 1964년 이후에 상원은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하원을 보면 가장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인

들, 목사나 신부, 특히 개신교 쪽 종교인들이 정당인으로 하원에 진출했고, 경찰이나 군인도 상당히 많은 수가 하원에 진출했는데,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운동가들은 절반 정도로, 83명에서 4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노동자당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의석을 많이 잃었죠. 어찌 보면 브라질의 현실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작년 6월 이후에 사회적 욕구와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위까지 일어났고, 진보적인 변화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의석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당선됐고, 약진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 정치 지형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당보다 아에시오가 카르도주의 시장 친화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화한 세력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아에시오를 지지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복: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호세피는 룰라의 후광을 계속 이용했고, 아에시오는 옛날 탄크레도 네베스(Tancredo Neves) 대통령의 손자잖아요. 그 후광도 적절히 활용한 것 같고요. 또 TV 토론에서 아에시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아에시오는 나이가 54세인데,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어떤 분석가는 만약에 선거가 2주 정도 더 늦춰졌더라면 아에시오가 2차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확신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마리나 시우마가 노동자당의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도 누렸지만, 반노동자당 정서, 그러니까 노동자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돼서 ‘도 아니면 모다’ 하는 식으로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마리나 시우바(왼쪽)와 아에시오 네베스 후보

강력하게 펼쳤죠. 그렇게 보수층 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쇄작용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김민곤 변호사님?

김민곤: 브라질의 정치 지형은 항상 좌파와 우파, 노동자당과 사회민주당로 나뉘는데, 중상류층은 솔직히 마리나를 대통령으로 고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TV 토론회에서 아에시오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후보 사이에 건강한 토론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데, 아에시오는 아주 논리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들도 호세피는 기피했기 때문에 비록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에시오 쪽을 선택했죠. 아에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아에시오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에시오가 저력을 보여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호세

피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토론회에서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에시오가 급부상했고, 애초부터 호세피를 기피하는 사람들, 호세피한테 실망한 사람들, 엉망이 돼버린 사회에서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에시오에게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호세피는 2013년의 대규모 시위, 브라질의 전반적인 보수화, 노동자당 정권 12년에 대한 반발 등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박원복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민곤: 제 얘기는 아주 짧으니까,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직도 호세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국민이 그렇게 호세피 흉을 보고, 부정부패도 많이 드러났고, 브라질의 국민성을 파괴하는 월드컵까지 졌는데도,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호세피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겠지만, 참 어처구니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기현: 브라질 중상류층이 지금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않을까요?(웃음)

박원복: 저는 브라질에 1986년부터 91년까지, 그리고 96년, 97년에 있었는데, 그때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노동자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쉽게 말하면 골수분자들의 지지가 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20~25%는 항상 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이 지역 기반으로 득표수를 유지했듯이, 룰라도 지지 기반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룰라가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면서 KFC 할아버지처럼 분

장도 하고, 중산층을 끌어들이려고 격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고정표인 20~25%를 기반으로 해서 중산층을 끌어들이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 호세피가 당선된 것도 그 고정표를 유지한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여론조사에서 일등을 하면, 토론회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예전에 콜로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호세피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아에시오나 마리나 같은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노동자당에 실망한 사람들, '이제 노동자당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죠.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에시오가 노동자당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도 아니면 모', '노동자당 아니면 우리'라는 식으로 양분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호세피의 적극적인 해명이나 대처가 느슨해질 수 있는 노동자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결속해서 당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역적으로 북부나 북동부 등 소득이 낮은 계층, 소외됐던 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들의 이반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호세피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가 '이 후보자는 안 된다'는 절대 거부 의 지수를 보니까, 전체 유권자에서 호세피를 반대하는 사람은 31%였는데, 아에시오는 41%였습니다. 뜻밖에 호세피보다 아에시오에 대한 거부반응이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당 지지자 중에서 '아에시오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81%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당 지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에시오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5%만이 '호세피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에시오 지지층의 충성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이런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계층의 지지 기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움직였다면, 아까 취약한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신, 그 층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호세피는 상당히 고전했을 겁니다. 즉, 이 계층이 호세피에게, 노동자당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준 것이 당선에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10년 대선보다 더 많은 정당을 끌어들이어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공동의 선거 전략, 선거 유세를 한 것도 아마 선전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세피는 과연 북동부 지방, 소위 저소득층 국민의 대변자일 뿐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기사를 봤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 브라질을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는데, 호세피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27개 주로 나눌 때는 65% 이상 득표한 주가 많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0% 대의 득표에 머문 주도 있지만, 크게 권역별로 봤을 때는 모든 권역에서 40% 넘게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김기현: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 정치의 지역성을 말씀하셨지만, 호세피의 확고한 지지 지역은 빈곤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인데, 재미있는 현상은 미나스제라이스 주와 리우(Rio de Janeiro) 주에서도 호세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부 지역이고 원래 아에시오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원복: 실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권기수: 리우와 관련한 설명은 보지 못했지만, 미나스제라이스에 관한 자료는 봤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는 아에시오가 주지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미나스제라이스는 노동자당의 아성이예요. 그래서 노동자당이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나스제라이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노동자당의 아성이어서 호세피가 이기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아에시오가 졌다는 사실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김기현: 미나스제라이스가 오히려 노동자당의 전통적인 아성이었다. 리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권기수: 리우쪽은 제가….

김민곤: 리우 쪽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나스제라이스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슈가 돼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봤어요. 물론 노동자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에시오가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주지사로서 참 잘했습니다. 아에시오가 지역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의 명망에 호응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 졌는지 봤더니 호세피가 지지율이 하락해도 승리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노동자당의 엄청난 정치적 마케팅의 힘이라고 하더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아에시오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미나스제라이스 주에 있는 시장들은 노동자당 소속이 많았대요. 그때 노동자당의 마케팅들이 아에시오를 헐뜯고, 마치 노동자당 덕분에 미나스제라이스 주가 발전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답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이 성공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Vale tudo)는 표현을 쓰면서 점령했다는, 아에시오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이에 노동자당이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시들을 장악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그런 기사들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박원복: 그리고 선거 막판에 노동자당이 아에시오 네베스를 공격한 기사를 보니까, 아에시오가 여성 편력도 있고, 부인도 학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미나스제라이스 사회는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상파울루나 리우하고는 많이 다르죠. ‘미네이로’(미나스제라이스 출신)라고 하면 브라질에서도 성실한 사람들로 알아주잖아요. 그런 공격도 얼마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 폭로는 선거전 마지막에 이슈가 됐었죠.

김기현: 호세피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젊은 대학생이 나와서 ‘이것은 소수 백인의 지배에 반대하는 우리 브라질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하던데, 종족 문제, 인종 문제도 선거에 작용했습니까?

권기수: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 종족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호세피가 당선됐고, 이제 전망을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를 전망해 봐야겠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IMF의 전망을 보면, 올해 브라질 성장률이 0.3%, 내년 예상이 1.4%라고 합니다. IMF가 항상 조금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 정도를 감하면, 0.4%,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2년 연속으로 거의 0%대 성장을 기록하는 셈인데, 도대체 브라질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의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을 얘기해 봐야 할 텐데, 이 문제는 경제 전문가이신 권기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죠.

권기수: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 브라질 경제 성장세가 기대보다 낮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박원복 교수님께서 가셔야 하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원복: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그러면, 경제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정치사회 분야를 얘기해보죠. 이번에 호세피가 3% 차이로 승리했잖습니까? 3백5십만 표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브라질 선거 사상 최소 차이 승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브라질 사회가 그만큼 양분화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호세피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호세피 정부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대통령처럼 당파적 접근, 양극화 정치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박원복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박원복: 1기보다 2기 때 의회가 더 분할됐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도 분열됐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당선 후 호세피의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였고, 외신들도 갈라진 국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사실 사회적 분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연정을 얘기했듯이 연정 때문에 부패가 만연해졌고, 연정의 대가로 여러 정당에 장관직을 나눠줘야 했고, 그로 인해서 멘살라웅(Mensalão) 같은 부패의 고리가 생겼죠. 그러다보니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기회는 뜻밖에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 정당이 휩싸이는 바람에, 그 살바 싸움에서 호세피가 조울을 잘못된 것 같아요. 호세피는 그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장관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경제 문제에서 델핑 네토(Antônio Delfim Netto) 같은 사람도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짚더라고요. 호세피 자신이 정부 장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재무장관으로서 뭔가 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들 면면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톨라는 방목했잖아요, 장관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당신들이 알

아서 책임지고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호세피는 정반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의회도 국민도 분열됐는데 사회 계층도 분열되면서 오히려 다양한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결국 해결책을 찾게 되라고 보는 예측이 저한테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까지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들이 사회적 충동이 격해지면서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따라서 국가와 정부가 관리하고 조율해가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으니 호세피가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국론 분열이 호세피 정부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정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려고 서로 연합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더 많은 문제점을 수면으로 떠올려서 정치 개혁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회적 분열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호세피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궁금해지는 거죠.

김기현: 그러니까 지금 여당 연합이 몇 개 정당입니까? 그리고 브라질 국회의 총 정당 수가 어떻게 되나요?

권기수: 전체 정당 수가 28개고 여당연합은 7~8개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배출한 정당 수가 가장 많아요. 20개를 넘어 28개 정도의 정당이 의원을 배출했어요.

김기현: 여하튼,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권기수: 선거에서 상파울루 이북과 이남의 대조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남부나 남동부에서도 호세피 후보가 선전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

적으로 상파울루 이남과 이북이 뚜렷하게 구분되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세피가 당선 후에 가장 먼저 주창한 것이 화합, 통합인 것 같아요. 최근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해서 대통령이 시상식장에 나타나 화면에 비치자 국민이 야유하고,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일부 시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브라질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굶아 터져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면 브라질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브라질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웃음) 멕시코와 비교할 때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혁에 대해서는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개혁이 위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멕시코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의 실질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평소에 컨센서스를 통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어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지금 브라질이 이 정도 상황이면, 정치권에서 자각해서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멕시코가 최근에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개혁 덕분이라는 사실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돋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브라질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호세피의 통치력도 그렇고, 1기에 보여줬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2기에도 사태를 제대로 장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개혁의 기치를 내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지우마 호세피

경제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사회적인 개혁도 공론화해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해 나가야죠. 그래서 호세피가 내걸었던 공약이 정치 개혁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이 작년 6월 시위가 발생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정치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 선거 국면이 훨씬 앞당겨진 거죠.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는 작년 말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6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모든 게 정치화됐죠. 그러면서 경제도 쑥대밭이 되고, 지금도 만약 정치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호세피에게 그런 것들을 제어할 통치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죠. 그리고 노동자당 내에서 야당과의 연정,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야당과 연정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현 집권

세력이 그런 자각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있죠. 호세피가 당선되고 나서 전반적인 행보를 보면, 아직 그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당분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복: 정치 개혁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선거 직후에 의회에서 호세피가 제시한 정치 개혁법 말입니다.

김기현: 정치 개혁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박원복: 제헌의회를 다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1988년 만든 헌법을 뜯어고치는 작업인데, 그게 쉽지 않죠.

김기현: 어떤 방향으로?

박원복: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먼저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의 뜻을 묻고,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그 제헌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의회가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은 현 의회의 존재감을 사실상 약화하는 선택이거든요. 국민이 새로 뽑는 사람들이 개혁을 주도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안은 현 의회의 입김이 들어갈 테니, 이런 방법으로는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지금 브라질에서 정치 개혁, 경제 개혁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개혁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정치 개혁에 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박원복: 우선 선거 자금 문제인데, 공적 자금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그다음에 선거 유세를 할 때 선거 도우미들과의 계약 건수도 줄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국민 세금이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김기현: 그 정도로 헌법까지 뜯어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헌하자는 것은 뭔가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하자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다당제가 문제시되겠죠? 다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방안 같은….

권기수: 기업에서 후원받는 선거 자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인물 위주의 정당 성격 때문에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는 문제처럼 브라질 정당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당 제도 자체를 개선하려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곤: 최근 개헌 논의를 보면 1988년 헌법을 얼마나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헌법개정안(PEC: Proposta de Emenda Constitucional)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부정부패를 최상급의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요. 상원에서는 통과됐는데 하원에서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현: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텐데, 정치 개혁안 중에서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김민곤: 정치 개혁안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호세피가 ‘개혁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하고 좌파이니까 개혁이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원복: 부패의 고리인 멘살라웅 같은 것을 추방하는 법을 만들자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조세 개혁도 그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해서, 제가 북동부 지방을 여행하다 어느 교수 집에 갔는데 그 자녀분이 호세피를 욕하는 거예요. 페트로브라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2위 그룹이었는데 지금 102위로 추락했답니다. 100위권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거

죠. 회장도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고, 기업들도 부정하게 돈세탁하고 말이죠. 그래서 국영기업부터 손보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하니까, 그렇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포함될 것 같아요.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박원복 선생님, 가보셔야죠?

박원복: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지금 브라질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권기수: 최근에 ‘복합 불황’이라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긴 했지만, 2010년에는 성장률 7.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여건 같은 것들이 악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전에는 중국 특수에 기대서 성장한 측면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카르도주 정부 때 시장 친화적인 개혁 정책의 성과들이 킬라 정부 때까지 잘 유지됐고, 그것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브라질이 2010년까지는 성장했죠. 제가 보기에 현재 브라질 불황의 원인에는 주기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같이 주저앉아야 하는데, 왜 유독 브라질만 성장세가 낮나는 것이죠. 호세페 정부 들어서 평균적으로 1.6%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세도 최근에 둔화하고 있지만, 특히 브라질의 성장세가 훨씬 더 둔화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얘기할 때, 거시경제 정책이기는 한데, ‘트리페’(tripé)라는 것이 있어요. ‘거시경제 정책의 삼각 축’이라고 해서 변동환율, 인플레이 통제를 통

한 물가 억제, 재정 건전성 제고,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는 카르도주가 IMF 금융위기 때 IMF와의 합의와 개혁을 통해서 1999년에 구축해놓은 틀인데, 물라가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그 정책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고 그를 통해 브라질 경제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즉 2008년 물라 2기 때부터 그 정책을 약간 수정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명목재정수지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제한 1차재정수지를 바로미터의 하나로 삼는데, GDP 3% 흑자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다 보니 그것을 낮추게 됐다는 겁니다.

김기현: 그게 최근에는 적자로까지 전환됐죠? 1차재정수지 말입니다.

권기수: 그렇죠.

김기현: 그러니까 1차재정수지에서 흑자가 나야 이자를 갚고도 총재정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데….

권기수: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환율제가 유지됐지만, 2008년, 2010년 계속 고 평가됐죠. 정부가 개입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금리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나 관리 물가를 통제했거든요. 특히 페트로브라스의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서 페트로브라스의 수익 기반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월 10억 헤알 정도 손해를 보고, 그런 것들이 페트로브라스의 시가 총액에 큰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물라 정부 때인 2008년부터 그런 정책을 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각축 정책의 근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호세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세피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Matrix)이라고 하는데, 그게

삼각 축을 다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간섭이 노골화하는 시기가 사실은 물라 때부터….

김기현: 자원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도 강화됐죠. 수입 억제도 있었고.

권기수: 지나친 보호무역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신경제 정책의 폐해… 무엇보다도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브라질에서 시행하는 국가 개입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단지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시기적으로 여러모로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경제는 심리다’, ‘투자는 심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투자 심리나 경제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투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투자 감소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소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도 2008년부터 브라질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소비를 지나치게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쓰다 보니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부채를 상환해야 하니 국민이 실제로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소비 증가율을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1%대 수준에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더디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브라질 경제의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하면 수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의 성장률이 현재

7%에서 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EU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EU에 대한 수출도 적자고, 유일하게 미국만 경기가 호황이라 수출이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미주 대륙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의 공산품 수출의 주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국가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브라질 공산품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이나 산업 부문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워낙 높죠. 고물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근의 인건비 상승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달리고 있어요. 인구증가율이 낮아졌다는 문제도 있고, 최근에 신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두고 브라질 내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용시장에서 인력이 줄어들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노동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 비용도 비싸지고, 그런 구조적 요인들이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물가가 높으니까 정부가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가격을 계속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피가 재선되고 나서 바로 금리를 0.6% 올려버렸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호세피 정부가 시장 친화적 노선을 택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가와 금리가 높다 보니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보기에 내년의 유일한 호재라면 어쨌든 재선이 끝났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어서 관망세를 보이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투자가 성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정도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이 성장을 전망을 0.3%에서 IMF의 1.4%까지 보는 차이를 만들죠. 저희는 브라질의 내년 성장률을 0.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0.6%를 끌어올릴 호재가 뭐냐, 그게 차기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심리가 안정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일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한 호재는 없지 않나 싶고, 또 내년에는 악재 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가장 취약한 5개국’(Fragile Five Countries)에 브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서 올해 9월까지 3.7% 정도이고 재정수지도 최근에 대선을 겨냥해서 지출이 늘다 보니까 최근 들어 GDP 대비 4%로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악재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환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어렵죠.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려면 심리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멕시코처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컨센서스를 이룬다면... 제가 브라질하고 비교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거든요. 인도는 브라질하고 ‘가장 취약한 5개국’으로 지목됐었는데, 최근에 유망한 시장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중앙은행 총재에 시장에서 신뢰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이라는 경제학자를 임명했고, 개혁 성향이 있는 나렌드라 모디가가 총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신뢰가 반전되면서 인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에도 악재가 많은데, 그런 상황을 반전시킬 요인들은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심리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요. 대선 이후의 첫 과제가 차기 재무장관 임명인데, 이 선택에 시장이 촉각을 곤



가장 취약한 5개국

두세우고 있어요. 브라질 언론에서는 아에시오가 당선됐으면 차기 정부가 2015년 1월 1일에 출범하는데, 호세피가 당선되면 2014년 10월 27일부터 2기 정부가 시작되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면 호세피가 미리 신임 재무장관 후보를 발표하면서 개혁적으로 가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당, 브라질 여당, 룰라가 재무장관을 추천하고 있는데, 호세피가 그중에서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알력이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김기현: 역시 경제 얘기가 나오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웃음) 정리해보자면,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브라질이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다가 이제 다시 긴축으로 가야 하는데, 때마침 중국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기존의 원자재 수출과 거기서 나오는 재정 수입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브라질 경제 모델이 구축됐다면, 이제 중국 경기 회복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원자재 수출이

쉽지 않을 테고, 옛날처럼 원자재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경제가 살 길은 외국 자본을 유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기존의 팽창 정책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죠. 긴축하고 개방하는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대개혁을 과연 호세 피 정부가 이뤄낼 수 있는냐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민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곤: 경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봤어요, ‘호세피가 대선을 치르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것을 지금도 괜찮으니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로 파악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전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세피는 지금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보고 한국에서 브라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치 개혁도 없고 경제 개혁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기현: 경제 개혁 없이 지금 정책 대로 간다면 브라질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권기수: 시장에서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있는 인도 경제학자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현재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을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디폴트 상태이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데도,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호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글을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가격이 최저점이니깐. 아르헨티나는 언제든지, 선거로 키르치네르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잠재력이 있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 상태에서 주가가 저점에 있으니까 주식을 사두면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아르헨티나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도 어떻게 보면, 경제가 침체할 때, 특히 마리나 시우바의 당선 가능성이 클 때, 주가가 뛰고 환율이 안정됐거든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브라질 경제가 잠재력은 큰데 호세피가, 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경제 정책에서 실정을 거둬서 과소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으니 이런 판단을 어떻게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정책으로는 대외적 여건도 브라질에 유리하지 않고, 발전 잠재력을 자가 생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개혁에 착수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겠죠. 브라질에 대한 재미있는 논쟁이 있는데, 2008년 이후 호세피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일부 혜택 받는 세력이 로비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브라질의 경제 정책에 대한 로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추정은 설득력이 별로 없지만,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 개입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브라질 노동당의 입김이 세계 작용해서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끌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경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피 정부가 신경제 정책이 국가 개입주의로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책이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그 혜택을 받은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김기현: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그렇

고, 지금까지는 경제 모델이 원자재 수출에 기반을 둔 내수 확대에 이뤄졌잖습니까? 일부는 이를 두고 포퓰리스트적 경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원자재 수출과 내수 확대 모델이 힘을 잃었으니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외국 자본 유입 모델을 정착시켜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중남미 경제사가 그래 왔으니까요. 외국 자본 유입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 투자 기회가 오니까 외국 자본은 그것을 바라죠. 아르헨티나도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그렇게 변화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아르헨티나에 대선이 있으니까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온다고 전망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브라질도 이번에 아예시오가 되기를 기대하고 투자한 사람이 많았는데, 호세피가 재선됐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죠. 그래도 호세피도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투자 기회가 온다. 1990년대가 그랬잖습니까? 1990년대 경제적 조건이 크게 호전된 것도 없었는데,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 모델 자체가 외국 자본을 유입하는 경제 모델로 바뀌었고, 엄청난 돈이 중남미로 몰려들었죠. 이제 또다시 그런 주기가 온다는 기대를, 국제 투자자들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과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현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과연 호세피 정부가 바뀔까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도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포퓰리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잘 무너지지 않아요. 이번에 호세피도 그렇지만, 좌파 정당들이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어서 선거로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기도 어렵죠.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정권을 내놓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퓰리즘의 생명이 질

긴 면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죠. 예전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든가. 현시점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큰 경제 위기가 생길 때까지 가느냐, 아니면 현 좌파 정당들이 기존의 모델을 바꿔서 개혁 모델로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재미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 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호세피가 이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스노든이 도청을 폭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2기 정부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 전망, 그 밖에 MERCOSUR, EU, 중국과의 관계 전망, 그리고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는 CELAC의 미래 등 전체적으로 브라질의 대외 정책을 전망해주시죠.

김민곤: 호세피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과의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제가 본 기사로는 G20에서 만나서 다시 얘기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세피가 2014년도에 있었던 도청 사건을 언급할까요? 지금 브라질은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세피가 당선되고 오바마가 축사를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외교 협력을 위한 좋은 말만 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도청 사건은 어느 정도 무마되고,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분위기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호세피나 룰라가 늘 말하듯이, 브라질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남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더 중요시하고, 중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에, 미국과는 관계가 호전된다기보다는 이대로 유지될 것 같고, 남미 쪽과의 관계를 더 심화함으로써 거기서 힘을 얻어 미국이나 유럽에 대응하는 구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브라질의 대외 정책 포커스는 여전히 남미공동시장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등 남미 중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도 설정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권기수: 저는 외교 정책보다는 대외통상 정책 측면에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국과 무늬만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실제로 현재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세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즉 대외통상 정책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대외 통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공동시장을 비롯한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남미공동시장으로 바게닝 파워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미국가연합으로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로 확대해서 브라질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정책,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브릭스(BRICs)나 중국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지키지 않을까요? 과거보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의 요구가 최근에 강하고, 또 브라질이 과연 자유무역협정(FTA) 지지국이냐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통상 정책에서 기존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일부 작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현: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브라질 정치가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화의 시기가 왔는데 과연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변화하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을 고수했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